

## 출생과 성장기

박길룡은 1898년 11월 20일, 종로에서 자그마한 미곡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쌀배달을 비롯하여 행상, 담배쌈지 집기, 단추구멍 뚫기와 같은 일들을 하며 고행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소년 시절부터 고생을 하여 18세가 되어서야 전차를 탈 수가 있었다고 한다. 경성고등공업학교가 개교한 1916년에 건축과에 입학하여, 3년후인 1919년에 졸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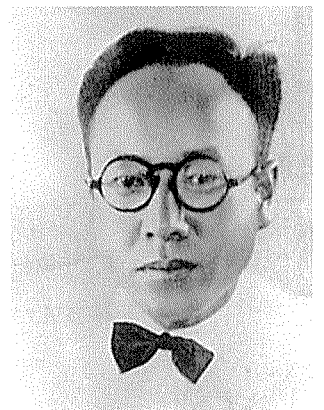
## 경성고공 건축과 제1회 졸업생- 5명의 동기생들

이 학교의 졸업생 명부를 보면, 조선인으로는 李起寅씨가 있었는데 총독 부채신국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건축계에 남긴 업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1939년 발행한 “朝鮮技術家名簿”(朝鮮工業會 刊)에서 李起寅씨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데 주소가 京畿道 廣州郡 廣州面으로만 되어 있고 근무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겠다.

아울러 같은 해에 건축과를 졸업한 일본인이 세 명 있었는데, 武居正通, 高田昌平, 桶口秀春이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졸업생명부에서만 이들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있고, 그 후 朝鮮建築會 회원명단이나 朝鮮技術家名簿에서 그들의 이름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李起寅은 현재 ‘不明者’로, 박길룡과 세 명의 일본인은 逝去會員으로 되어 있어, 이들의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 건축수업에 대하여

지난 호에서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 일본의 고등공업학교 교과과정을 몇 가지 살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1923년부터 1929년까지 이 학교의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藤島亥治郎의 회고담을 통하여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 즉 1학년은 英語, 數學, 繪畫를 중심으로, 2학년은 製圖가 가장 많았으며 건축구조와 건축법을, 3학년은 졸업설계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상기하여야 할 것은, 藤島亥治郎이 건축역사와 건축예술에 대하여 이해시키려고 사진을 보여주며 강의를 하자 학생들이 맹렬하게 반발하였다는 점이다. 藤島씨가 이 학교에 부임한 것은 박길룡이 이미 졸업한 후 였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초창기 때가 더욱 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에 건축과에 입학한 사람들 대부분이 건축예술, 예술사조와는 거리가 있었고, 공학기술을 습득하여 빨리 현장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藤島씨의 기억이며, 또한 학생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들은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해 오기까지 꽤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가정환경의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그 분위기가 평



박길룡(1898~1943)

# 한국의 건축가-박길룡(1)

Korean Architects - Park Gil-Ryong

## 건축수업과 활동

윤인석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Yoon In-Suk

1. 한국인 건축가의 탄생배경 (필자 / 윤인석)
2. 박길룡(1) - 건축수업과 활동 (필자 / 윤인석)
3. 박길룡(2) - 작품과 건축사상 (필자 / 윤인석)
4. 박동진 - 생애와 작품 (필자 / 윤인석)
5. 강 윤(1) - 건축과의 만남 (필자 / 김승제)
6. 강 윤(2) - 강윤과 Vories (필자 / 김승제)
7. 강 윤(3) - 해방 후 작품활동 (필자 / 김승제)

장히 산만하였던 것으로 그는 전하고 있다.

### 강한 民族魂과 長子情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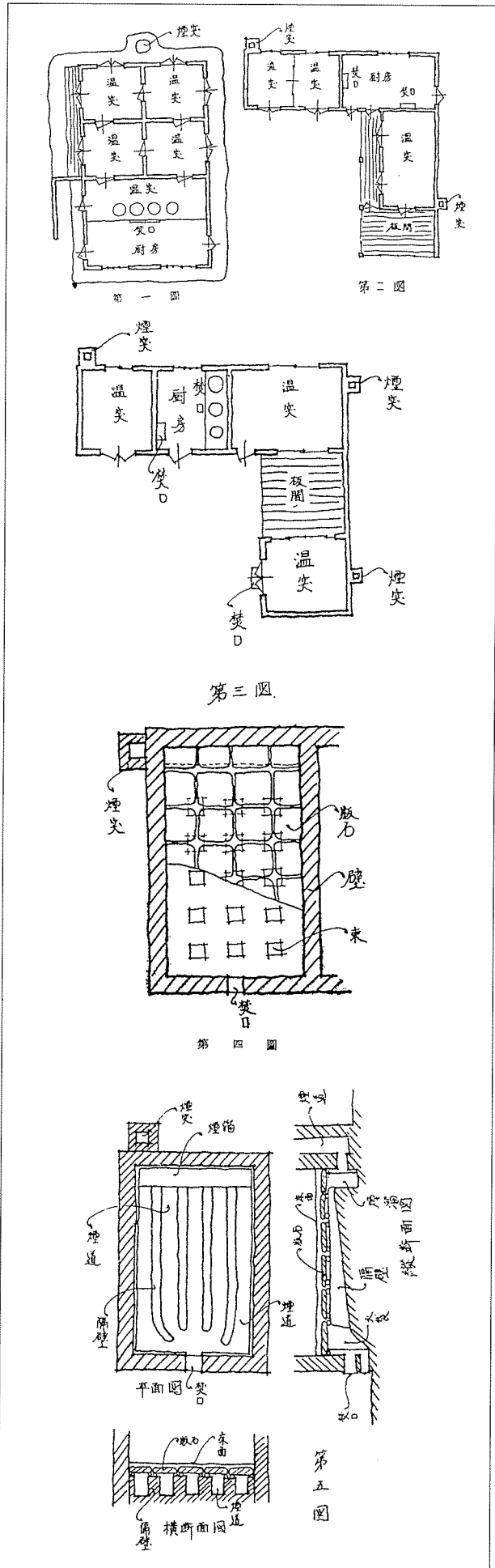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3년간 학교생활을 하였던 박길룡은, 어려서부터 종로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발로 뛰는 여러가지 고생스런 일을 하였던 경험이 토대가 되어 민족의식이 더욱 강해지고, 건축가로서도 보다 능력있는 존재로 성장할 그릇을 키웠는지도 모른다. 사실, 일제강점기의 서울지도를 놓고 보면, 남산기슭의 왜성대(지금의 예장동)에서 시작한 일본인 거주지가 지금의 진고개, 충무로, 을지로, 회현동, 남대문로, 세종로, 경복궁(총독부)으로 잠식해 들어가면서도 종로는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 놓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서울사건을 보면, 다른 지역은 일본식 건물과 양식건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종로지역만은 한옥이 즐비하였으며, 지금도 재개발이 채 진행되지 않은 데를 다녀 보면 을지로, 명동, 충무로의 옛 건물과 종로 뒷골목의 건물이 일본식 가옥과 한옥으로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서울내에서 조선인들이 전래의 빛깔을 잃지 않고 생활하던 이 지역에서 하부계층 사람들의 애환을 보고 겪으며, 오늘날 그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평하는 의협심, 결단력, 근면성, 열정, 보스형 기질이 길러졌다고 볼 수가 있다.

더욱이, 그가 건축교육을 받고 졸업한 해는 이땅에서 민족의식이 최고조에 달했던 1919년이었으며, 3.1독립만세운동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이 땅의 첫 건축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청년기에 분명하게 정립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전인 1967년 4월에 “空間”誌는 朴吉龍 特輯을 엮어 펴낸 바가 있다. 그 중에서 故 尹一柱교수는 ‘건축가와 사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길룡의 생애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술한 바가 있다.

“... 이 글을 쓰기 위하여 문헌-인쇄화된 것과 유고-을 앞에 놓고 펼쳐 보기 전에 내심 근심한 것은 혹시라도 친일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어찌할까하는 의구심이었다. 그러나 문헌을 뒤질수록 이러한 마음은 점점 개이며, 그의 한국인으로서 떳떳한 입장과 주장은 나의 마음을 다소 들뜨게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의 한국주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 개량에 대한 노력, ‘동아일보’, ‘조선일보’ 양대민족지에 하였던 투고, 이화여전 출강, 일정말기에 국문으로 된 건축지의 발간 등은 13년에 걸친 총독부관리 생활을 지내고 일인들과 사업상 紐帶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그가 얼마나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는가(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당시로서는 이용되지 않을 國文建築述語集을 집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감탄케하였다... (중략) ... 그가 타계한 1943년은 이미 創氏制度가 실시된지 4년이 경과한 때로서 “朝鮮と建築”誌의 그의 追悼號에 나오는 집필자의 이름이 韓人과 日人을 구별할 수 없도록 전부가 일본식 이름 속에서 ‘朴吉龍’과 그의 장남 ‘朴容九’만이 뚜렷한 한국인 이름임을 얼마나 떳떳한 일인가? 그



朝鮮의 建築 에 기고하였던 ‘한국재래 온돌의 구조’라는 논문에 삽입된 도면들

本籍 서울特別市 鍾路區 智洞 278

住所 서울特別市 鍾路區 公平洞

- 1898年 11月 20日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出生.
- 1919年 3月 25日 : 京城工業專門學校建築科 卒業.
- 1920年 12月 31日 : 朝鮮總督府 技手.  
總督官房土木部 勤務.
- 1922年 12月 15日 : 總督官房庶務部兼務.
- 1929年 6月 5日 : 朝鮮博覽會事務局兼務.
- 1932年 5月 7日 : 朝鮮總督府技手.
- 1932年 5月 7日 : 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 勤務.
- 1932年 5月 9日 : 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 退職.
- 1932年 7月 7日 : 建築事務所 開設.
- 1938年 3月 : 社團法人朝鮮建築學會理事.
- 1941年 7月 30日 : 京畿建築代書士 組合長.
- 1941年 8月 20日 : 朝鮮住宅營團參與委囑.
- 1942年 4月 : 梨花女子專門學校講師.
- 1942年 7月 30日 : 朝鮮水利組合聯合會建築事務委囑.
- 1943年 2月 1日 : 朝鮮農地開發關係營繕關係事務囑託.
- 1943年 4月 27日 : 서울 公平洞에서 死亡.

박길룡의 약력

가 貴族出身이나 富家出身이 아니라 자력으로 입신하여 지배민족 속에서 자민족을 의식하며 당당히 처신하였다는 사실은 내 자신의 일처럼 마음 흐뭇한 일이며, 그 사실에서 不屈하였던 한 약소민족의 상징을 보는 것이다....”

### 실무에서 쌓은 실질적 건축수업

이제 그의 건축수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자.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학생시절 그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당시의 사람들이 전하는 바대로 또는 당시의 일본에 있던 동급 학교의 자료를 참조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그 분위기도 건축예술이라든가 건축사상 교육보다는 기술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학생들도 취업의 방편으로 건축을 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박길룡이 학교를 다니던 시기에는 전임교수가 부임하지 않았고, 대개 조선총독부, 경성부, 내무국에서 활동하던 일인 기술관리들이 강사로서 교육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학창시절에 심도있는 건축교육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신백화점과 같은 건축물은 어떻게 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을까? 이는 졸업후 13년간 몸 담았던 朝鮮總督府 建築課 시절이 그에게는 실질적인 건축수업의 기간이었다고 생각된다.

박길룡이 취업하던 때는 朝鮮總督府 新廳舍를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계가 온힘을 쏟던 때였기 때문에, 그도 技手로서 이 일에 관여하였다.

### 조선총독부의 건축조직

여기에서 그의 총독부 근무시절을 이해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건축관계 부서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조선총독부의 건축관계 부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官의 건축계를 이끌어 가는 대표적 집단이었다. 이 조직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선을 다스리기 시작한 조선총독부는 전국적으로 행정관서의 건설을 행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만들기의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건설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총독부는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73호를 발령하여 총독부내에 건축 및 토목직원을 채용하였다. 그 칙령으로 채용된 건축, 토목관계의 직원은 技師 7명, 技手 90명에 달하였다. 이들 토목·건축기술자 중에서 건축기술자는 총독부 총무부 회계과 영선과에서, 토목기술자는 내무부지방국 토목국 및 각 지방의 토목과출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1910년에서 1911년은 총독부총무부 회계국 영선과가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직편성하였다. 그 후,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이 기구는 總督官房 土木局 營繕課가 되었고, 總督府 庶務部 會計課 (앞의 총무부 회계국의 후신)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축업무를 담당하였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는 토목부 영선과로 되었으며, 1924년부터 1929년까지는 總督府 內務局 建築課가 되었다. 여기에서, 명칭이 營繕課에서 建築課로 바뀐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조선총독부 신청사를 비롯하여 대규모 관청건축의 건설이 전국적으로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명칭이 營繕이라는 소극적인 것에서 建築이라는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1929년부터 1945년까지 종래의 건축관계업무는 재편성되어 總督官房 會計課 建築係가 담당하였다.

### 조선총독부 건축과의 사람들

여기에서 박길룡이 총독부 근무시절 어떤 사람들과 遭遇하였는지 그 주요 구성원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1910년, 출범했던 때에는 사무관 1명, 기사 2명, 촉탁 9명, 기수 3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건축기사 2명은 岩井長三郎과 國枝博이었다. 특히 岩井長三郎은 영선과장이 되어, 1929년 그 직을 사임할 때까지 총독부내의 건축관계부서의 책임자로서 활약하였다. 당시 직원중에 조선인 기술자는 아직 없었다. 이 조직은 1945년까지 언제나 2~5명의 건축기사, 10~20명의 촉탁, 평균 60명의 기수가 일하는 규모로 운영되었다.

여기에서 일했던 주요 인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岩井長三郎(재직기간: 1910-1929)

1905년 동경제국대학 졸업 후, 대장성기사로서 임관되었다가 경술국치 직전 조선으로 건너와 1910년부터 조선총독부 기사로서 일하였다. 수 년후에는 총독부 건축관계부서의 課長이 되어 1929년까지 20년간 조선의

건축계를 이끌었다. 퇴임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가, 동경에서 일본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동경지점장으로 3년간 근무하다가 1935년 서울로 돌아와 3년간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 中島猛埃(재직기간:1922-1929)**

1911년 동경제국대학 졸업. 1922년 부터 1929년 까지 총독부기사로서 근무하였다. 1929년에 사임한 후에도 서울에 남아서 경성고등공업학교 강사로 일하였다.

**\* 笹慶一(재직기간:1925-1938)**

1913년 동경대학 졸업. 1920년대부터 총독부의 기사로서 일하였으며, 岩井長三郎가 사임한 후 1930년부터 1938년까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퇴임 후에는 多田工務店 고문이 되었다.

**\* 岩槻善之(재직기간:1922-1930)**

1921년에 동경제국대학 졸업후 조선으로 건너와 1931년 6월 22일, 서울에서 병사할 때까지 총독부 기사로 일하였다.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 시공법 및 계획의 강사로도 활약하였다.

그 밖에도 齊藤忠人, 萩原孝一, 寺師通尙, 井上鴻太郎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또 하나, 총독부의 건축관계조직으로, 경복궁 건축출장소가 있었다. 이는 조선총독부 신청사 건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기구로 총독부 청사 완공 후에도 후속 작업을 한 후, 1929년 3월에 폐지되었다. 富士岡重一(재직기간:1919-1927), 野村一郎, 國枝博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 시기가 박길룡에게는 실질적인 건축수업의 시기로, 특히 총독부 신청사 건설공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젊은 때에 상당한 규모의 규범적인 건축물을 접하고, 많은 관공서의 설계를 경험하여 그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 갔던 것이다.

**총독부 기사직을 사임하고 독립 건축사무소 설립**

1920년 12월에 총독부 토목부 영선과 技手로 취업하였고 1932년 5월 7일 技師로 승진하면서 5월 9일 퇴직하였다. 총독부 재직기간 동안, 조선인들의 건축물을 파악하고 설계하기도 하였다. 당시 서울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개업하고 뚜렷하게 활동하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 조선은행건물공사 감독을 위해 서울에 왔다가(1908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무소를 설립, 활발히 활동하였던 中村興資郎은 1922년에 일본으로 귀국하였고, 미션계통의 학교와 교회건축을 주로 설계하였던 미국인 보리즈도 일본에 본사를 두고 서울에 지사를 개설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공평동 59번지에 박길룡건축사무소를 개설하던 1932년은 1920년대에 왕성하게 일었던 경제적 호황의 여파

로 조선인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약간의 자본으로 사무소와 상가건물이 많이 세워질 때였기 때문에 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박길룡건축사무소는 1943년 그의 사후에도 金世演씨가 맡아서 꾸려 나갔으며, 광복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되었다. 당시의 직원은 김관정, 전창일, 이병문, 김한섭, 오영섭 등 경성고공 출신들이었으며, 장연채, 유원준, 유상하등은 총독부에 근무하면서 박길룡사무소에서 부업으로 설계일을 거들고 있었다. 일거리가 있었으며, 기술을 가진 조선인들끼리 모여서 건축에 대한 토론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이 곳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저녁때 이 곳은 마치 조선인 건축인들의 클럽 같았다고 한다.

**건축계에서 활동상**

1922년 설립된 '조선건축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38년에는 조선인 건축가로서는 처음으로 이 회의 이사가 되었다. 1941년 京畿 建築代書士 組合長을 역임하였고, 朝鮮住宅營團에 참여하였다. 1942년에는 梨花女子專門學校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주택독본 과목을 담당하였다.

1943년에 朝鮮 農地開發係營繕關係 業務를 위촉받아, 농지 개발영단본부의 건축을 담당하였다.

**향년 46세로 별세**

최후의 작품이 되어버린 혜화전문학교의 외관 디자인을 세상 뜨기 전날까지 매만지다가, 1943년 4월 27일 아침에 타계하였다. 46세-건축가로서는 이제사 진정한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이 땅에 한국인 건축가로서 광복이후 건축계를 이끌어 갈 시기를 맞지 못하고 너무나도 아쉽게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활달하고 명랑한 성격에, 유머를 좋아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쾌활함은 고생하였던 어린 시절, 그리고 식민지 청년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자신을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고 친지들은 말하고 있다.

또하나 그의 업적중에서, 건축과 상관없는 일이어서 주목받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발명학회'를 창설한 일이었다. 1924년 10월에 박길룡을 비롯한 여러사람들이 산업기술의 기초를 확고히 하자는 뜻에서 각출하여 만든 단체였는데, 훗날 재정난으로 말미암아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이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일에 대한 열정과 민족사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이렇게 큰 별이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다는 것은 우리 건축계의 불행스런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